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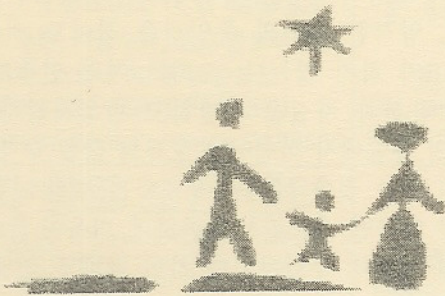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제27권 5호 (다해) 2006-12-31

[묵상]



손에 손을 잡고

그 옛날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파스카의 축제!
 그 땀
 하느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고,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의 손이 예수님을 이끌고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영회 (장애시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3단계)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이야기 성서반	오후 2:00 오전 10: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이야기 성서반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복사단 모임 (첫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5:00 오후 5:00 오후 5:00
주일	영어권 Bible Study(방학)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10:30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매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미사	(연) 김금란 수산나, 임삼옥과 김광녀 (생) 방세훈 요한, 민영준 마르코, 성낙호 요셉 가정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주야 미사	(연) 김금란 수산나, 최순임 마리아, 황한순 루시아, & 최동열 김인석 바오로, 이필수 & 강태람, 김시형 시릴로 김기련 안드레아, 이현호 요한, 데니스 웨버, 이영자 마리아 (생) 서인수 요셉과 은순 모니카, 김여희 마리아나 박순자 안젤라, 김순희 모니카, 최옥희 테레사 이종민 요셉, 이영희 카타리나, 육근주 율리안나 가정 이현주 켈트루다 가정, 이범석 스테파노 가정, 이정선 안젤라 가정, 이진향 아녜스 가정 이재정 요한 & 베로니카 가정 오세원 아타나시오 & 루시아 대자 대녀들을 위하여 온 안토니오와 세라피나 대자 대녀들을 위하여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 3,2-6.12-14
화답송	◎ 주님의 집에 사는 자 얼마나 행복되리. <전례성가 62 성가정 축일> ○ 복되어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도를 닦는 자는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리니 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 ○ 너희 집 안방에는 네 아내가 마치도 열매 푸진 포도 나무인 듯, 너의 상 둘레에는 네 자식들이 마치도 올리브의 햇순들 같도다.◎ ○ 옳거니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듯이 복을 받으리이다. 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어 한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도다.◎
제 2독서	콜로새서 3.12-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 음	루카 2,41-52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어울리셨다.

오늘의 성가

	토요 특전미사	야 미사
미사곡	51 ~ 58	33 ~ 42
입당	145	146
봉헌	378	264
성체	376	287, 306
파견	394	101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제1장 거룩한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일반 원칙

라) 민족의 특성과 전통에 대한 적응 규범

37. 교회는 신앙이나 공동체 전체의 선익에 관련되지 않는 일에서, 엄격한 형식의 통일성을 적어도 전례에서는 강요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민족과 인종의 정신적 유산과 자질을 계발하고 향상시킨다. 그리고 민족들의 풍습에서 미신이나 오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호의로 존중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고스란히 보존하며, 더욱이 참되고 올바른 전례 정신에 부합하기만 하면 때때로 전례 자체에 받아들인다.

38. 로마예법의 실질적 통일성이 보존된다면, 여러 집단, 지역, 민족 들을 위하여, 특히 선교 지역에서는, 정당한 다양성과 적응의 여지가 남겨져야 한다. 예식서들을 개정할 때에도 그러하다. 이는 예식의 구성과 예규 작성에서도 적절히 유의하여야 한다.

39. 예식서들의 표준판에 제시된 한계 안에서, 특히 성사들의 집전, 준성사, 행렬, 전례 언어, 성음악과 성미술에 관한 적응들을 결정하는 것은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의 소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헌장에 있는 근본 규범에 따라야 한다.

교구와 본당 사목구의 전례 적응 절차

40. 그러나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전례의 더 깊은 적응, 따라서 더 어려운 적응이 요구될 때에는,

- 1)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이 일에서 무엇을 각 민족의 전통과 특성에서 적절히 하느님 예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지하고 신중하게 숙고하여야 한다. 유익하다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된 적응들은 사도좌에 제출하여 그 동의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
- 2) 그러나 적응이 반드시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사도좌에서 특별 권한을 받아, 사정에 따라, 적응에 적절한 어떤 단체 안에서 일정 기간 필요한 예비 실험을 허용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3) 전례 법규는 흔히 적응과 관련하여 특히 선교 지역에서 특수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법규 제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백삼위 전례연구 위원회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였다” (루카 2,51)

오즈음 길을 걷다보면 땅이 매우 차갑고 딱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차가운 대기와 얼어붙은 대지. 겨울은 우리에게 가진 것 모두를 내려놓고 빈 몸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라고 자꾸 재촉하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성가정 축일은 겨울나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 요셉이라는 큰 나무 아래서 아기 예수님이 자라시고 '세상'이라는 거센 바람 틈새에서 성모님이 안식처를 찾습니다. 거친 항해에서 항구에 돌아온 배처럼 성 요셉은 조용히, 따뜻하게 모자(母孑)를 감쌉니다.

하지만 '성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처럼 부모가 이해할 수 없었던 아기의 신원. 가장인 요셉은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은 결혼도 하지 않고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성모님.

가족이 화목하셨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부(富)'와 '귀(貴)'는 없었습니다. '부'와 '귀'가 없으니 어디서 세상의 '영화'를 누리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가정이라니!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을 전제로 한 다음에 성가정을 생각하겠지요. 그 '행복한 가정'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전도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성모님과 성 요셉, 아기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 나자렛의 가족은 성가정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 잉태된 아기지만 남편은 아내의 부정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인물이기 전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이가 참으로 머리 숙여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계시다니!

이런 성 요셉의 그늘 아래 가족은 극진히 사랑하고 아껴주며 존경하면서 서로에게 순종하며 사셨겠지요. 성가정을 이끌어 온 동인은 사려 깊은 배려가 깔린 가장(家長) 요셉의 침묵과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루카 2,51)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깊은 명상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울타리가 없었다면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따뜻하고 다정한 성품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나자렛의 작고 소박한 집에서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은

세 식구가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평화가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하느님의 구원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 평범한 가정의 나날들 안에서였겠지요. 나자렛의 하루하루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당신 사명을 이루시는 그 위업의 토대가 되었겠지요. 집을 지을 때 하나하나 쌓여지는 벽돌처럼 말입니다.

성가정을 바라보면 가족이 함께 한 시간이 길던 짧은 간에 그 구성원은 결코 해체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은 이미 가족이라는 말로 완전하게 묶여져 있으니까요. 세월도, 병고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 유대를 풀 수는 없겠지요. '죽음'이라는 좀 긴 이별은 차라리 생전의 시간을 더 투명하게 보여주겠지요. 팔로 못 다한 그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갈까요. 지극한 마음이, 하물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말로 다 표현되고 드러나겠습니까. 문득 스치는 바람처럼 자식은 그렇게 밖에 느낄 수 없는 것이겠지요.

이런 성가정을 그려보니 "다이아몬드 더스트(diamond dust)"가 생각납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시베리아와 같은 극지에서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얼어붙어 그 미세한 입자들이 마치 다이아몬드가 산산이 부숴져 점점이 빛나며 떠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존재조차 잊고 살았던 것들이 흑한에 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자렛에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 요셉과 성모님의 눈길이 이렇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더스트 같았겠지요.

성가정의 소박한 사랑을 바라보며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그 무엇인 가족과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

우리 가정도 사랑의 보금자리와 학교, 작은 성당이 되기 위해서는 성 요셉과 성모님처럼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루카 2,51)하는 침묵과 명상,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가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 이기락 타대오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최진수 (에우세비오)	이진향 (아네스)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우구스티)	모은기 (다두)	오세원 (아타나시오)	제1독서자	김정은 (세실리아)	모은기 (다두)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박희자 (마리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텔)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P. V. 3 반	제물봉헌자			토 서 2, 3 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계시판에 기록합니다.
 ☞ 지난 주간 합계 : 4,761 ☞ 총 합계 : 68,734
- ◆ 사랑의 종소리를 울려 주세요.
 ● 사제 집무실 앞에 비치된 건의함을 많이 이용해주세요.

☞ 기도중에 기억해 드립시다. ☞

병환중에 계신분들

- 노천수 프란치스코
- 윤재림 마리아
- 이병호 토마스
- 이봉림 안나
- 정선결 모니카
- 정윤 요셉
- 조지 가보라
- 최효선 안젤라

2006년 세상을 떠난 영혼들

- 김금란 수산나
- 김옥주 마리아
- 김인석 바오로
- 김진성 루스
- 박인금 마리아
- 송정희 그라시아
- 장두선
- 전길례 모니카

◆ 주일/한국학교 겨울 방학

- 주일학교 : 12월31일~1월28일
- 한국학교 : 12월24일~1월7일

※ 방학동안 주일학교 9시30분 English 미사 있습니다.

◆ 백삼위 신앙학교 임시휴강

- 1월2일(화)


◆ 남성 제26차 영어 꾸르실료 교육

- 1월11일(목)~14일(주일)
- Mary & Joseph Retreat Center, R. P. V.
- 수강자 : 김병수 베드로
- 수강자를 위한 많은 기도와 빨랑카를 부탁드립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12월31일 : 토렌스 서 1반 (김밥 \$3)
- 1월 7일 : 소공동체 (김밥 \$3)

❖ 가정 성화의 주간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은 신자들이 나자렛의 성가정을 특별히 기억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날입니다. 부부가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는 모범을 보일때 자녀들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게됩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성가정을 본받아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 송년, 신년미사 안내

- 12월31일(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오전 7시30분, 오전 9시30분(학생미사), 오전 11시
- 송년미사 : 12월31일(주일) 오후 9시
- 신년미사 : 1월1일(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오전 11시



- ◆ 1월 병자영성체 : 1월4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 ◆ 1월 성시간 : 1월4일(목), 저녁미사
 ● 진행 : 토렌스 북구역
- ◆ 1월 성모신심 미사 : 1월6일(토), 오전 8시30분

☉ 새로 오신 신자분들을 환영합니다. ☉

- 김재우 베드로
- 손춘희 아네스
 자녀: 정주령 세실리아
- 안춘수 토마스
- 오세정 아브라함 & 이현옥 발바라
 자녀: 오지석 세실리아 & 승석 마로
- 윤혜미 글라라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미경 김양금 김완태 김용상 김재연 김정엽	성전헌금	김미경 김양금 김용상 김재연 김정은 김택수
	김정은 김택수 김행선 김현숙 모은기 박홍룡		김행선 김현숙 모은기 박홍룡 소성덕 송재훈
미사헌금	소성덕 송재훈 신대석 오강림 육재민 이병우	감사헌금	신대석 육재민 이병우 이병관 이봉덕 이재정
	이병관 이재정 이현주 장영진 정동호 정명모		이현주 장영진 정동호 정순옥 조준제 차병용
	정순석 정순옥 조준제 차병용 최귀환 최수복		최귀환 최원석 최진수 하정화 한창주
	최원석 최진수 하정화 한창주 홍선자 황인중		김아가비도
	김아가비도		합계 : \$4,090
	합계 : \$4,320		
	미사헌금 \$2,339	성탄 낮미사 헌금 \$1,697	합계 : \$4,036
		감사헌금 장정진 익명	

남가주 소식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 작은 예수회 “1일 점심과 찾집”

- 2007년 1월6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 작은 예수회 L. A. 시설(올림픽과 후버 근처)
- 메뉴 : 갈비백반 + 음료수 (1인당 \$10)
- 연락처 : (213)387-3301
- 1일 점심과 찾집은 매달 첫째 토요일에 열립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장애식구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 청년 프란치스칸(FYLA) 피정

- 주제 : ‘참 기쁨’
- 강사 : Br. Mark Schroeder, OFM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 2007년 1월19일(금), 오후 7시~21일(주일), 오후 2시
- Serra Retreat Center, Malibu, CA
- 신청 마감일 : 1월14일(주일) ● 참가비 : \$160
- 문의 : 손진업 스테파노 (714)791-7515

◆ 미주 가톨릭 방송

📺 인터넷 방송

- www.kcbcus.org

📻 생방송

- 라디오서울 : AM 1650 khz Sat. 9:00pm ~ 10:00pm
- 라디오코리아 : AM1230 khz Sun. 5:30am ~ 6:30am

◆ 고등학생 골롬반 선교회 모임

- 매월 세째주 주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 문의 : 한경숙 안나 (530-7702) 오후 6시 이후

사람을 구합니다.

❖ 한미은행 ❖

- 분야 : Help Desk, Application Support (2명)
- 자격 : Fluent English, Basic computer knowledge 은행업무 무경험자 OK
- 연락처 : Fred Mo (213)505-5337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반장 모임	오후1시, 장당
----------	----------

다음 주 단체 모임

각단체 모임	오후1시, 각교실
--------	-----------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3	정정숙 레아 791-5696	
	4	권본경 율리아 834-2831	남자반 1째수 오후 7시, 성당 여자반 2째수 오후 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	이은록 요셉 999-5677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2	임진희 한나 720-7898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좌장) 938-3255	권병연 리디아 938-3255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4	박진숙 엘리사벳 562-412-4021	박진숙 엘리사벳 562-412-4021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 좌장) 808-5005	1	김영남 레지나 514-0162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4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클라라 544-6290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3	전애경 율리아나 541-5370	
	4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사랑과 질서로 엮어가는 가정의 행복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황제의 호구조사령이 내려진 가운데 유다 베들레헨의 어느 마구간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낱 포대기에 싸여 말구유에 눕어진 아기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이들은 하느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느님 아들'의 잉태와 동정녀의 초라한 출산, 느닷없이 들이닥친 한 무리의 목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 속 깊이 새겨 간직하고(루카 2.1-20), 요셉은 이 엄청난 일을 거저 당하다시피 했으니 그 혼란스러움이 가히 짐작된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에게 할당된 몫을 수행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꾸려나가는 하나의 가정! 나자렛의 이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다른 어느 가정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가정은 성가정(聖家庭)이다. 그렇다고 마리아와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성가정으로 선포한 적은 없다. 이 가정이 성가정이 되는 이유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아기의 잉태와 탄생을 놀라움과 기쁨, 순명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루는 가정 안에 스며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며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정이 없으면 사회도 국가도 없고 인류도 없으며, 문화도 문명도 종교도 없다. 사람의 모든 것은 가정을 뿌리로 성립된다. 가정은 분명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인간적 제도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천륜(天倫)을 따라 이루어진 신적(神的) 제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가정은 인간적 사랑과 신적 질서로 표현된다. 질서 없는 사랑은 쾌락이 될 뿐이며, 사랑이 없는 질서는 잔인할 뿐이다. 사랑과 질서는 마치 빨래 줄을 팽팽하게 유지시키는 양쪽 기둥과도 같은 것이다. 모든 가정이 추구하는 행복을 이 빨래 줄에 비한다면, 줄이 팽팽해야 빨래를 걸어 말릴 수 있듯이 사랑과 질서 안에서 가정이 추구하는 행복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오늘 미사의 독서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집회 3.2-14; 콜로 3.12-21)

그런데 우리 사회는 참으로 암담하다. 암담한 이유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국민들의 양적인 삶은 개선됐지만 질적 수준은 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최근 한국의 전체 인구는 약 4,728만 명(2005년 11월)으로 집계됐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1만6천 달러, 그런데 소비지출의 60%가 서비스부문이라는 사실은 과히 놀랄 일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서비스 부분의 지출이 총지출의 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개인중심주의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가정이 그에 속한 구성원 개인의 소비력을 감당하지 못하면 쉽게 파산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2002년 통계자료를 보았더니, 그해 우리나라에는 약 30만 6000쌍이 결혼하여 그 절반에 이르는 14만 5000쌍이 이혼했다고 한다. 결혼이 있으면 이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절반이 넘는다면 모든 가정이 위험 수위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혼사유로 1992년 1.9%에 불과했던 경제문제가 10년 만에 13.7%로 급증했다는 것은 돈 때문에 두 가정 중 한 가정이 이혼으로 무너졌다는 것이다.

가정의 본질과 의미가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심하게 무너지는 책임소지를 따져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변명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 가정이 먼저 가정의 본질과 의미를 새롭게 해야 하여 이를 구현해야 한다.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질서와 사랑을 다시금 점검해보아야 한다. 가정의 행복과 궁극적인 목적이 물질의 풍요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먼저 가정이 신적(神的) 질서에 의해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인간적 사랑 때문에 아픔과 갈등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 가정이 비록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정신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며, 각자가 서로를 위해 오직 존재한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